

韓稚振君의 反動的 唯心論의 論駁함

宋在洪

一, 序說

[一] 本論을 왜 쓰게 되는가.

나는 本紙 十月號를 通하여 韓廷玉氏의 名論인 『生命論』을 읽은 바 있다. 그래서 곧 나는 그의 철업는 作亂을 訓戒식하기 爲하여 駁筆를 돌려하였다. 그새에 었던 동무가 『이사람아 그까짓 어린 兒孩들의 挑戰에 一一히 應하는 것은 모기 보고 칼 썰는 格이 안닌가』라는 忠告도 받고 또한 나도 應戰의 興味도 업서서 그만둔 일이 잇섯더니 또다시 本紙 十一月號에서 韓稚振氏의 大論文인 『唯心이나? 唯物이나』라는 것을 읽고 나서 새삼스럽게 生覺 되는 바 있다. 우리 朝鮮은 特殊한 地位에 處해 잇는 것 만큼 아즉도 民衆의 頭腦에는 封建思想 즉 宗教, 宿命思想이 大部分을 占領하였다. 그런대다가 雪上加霜으로 썰조아지-忠犬들인 哲學的 武士들의 惡魔的 說語가 亂發하게 되면 大衆은 加一層 眩惑에서 徘徊할 것이다. 그러면 었지 우리가 이것을 彼岸의 火災視하랴?

그렇타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觀過하면 그야말로 鬪爭의 回避者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科學的 武器로 彼 等의 亂譚, 狂歌를 分析하고 批判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누구가 眞正 한벗인 것을 알녀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本論을 쓰게 된 것은 이 重大한 原因에 決定을 맞은 것이다.

[二] 彼論의 出世 理由는 어데잇는가

『唯物論을 支持하라!』[神秘思想을 撲滅하라!] 라는 슬노칸은 벌써 過去 썰조아지-들의 絶叫하였던 것이다. 그는 當時 그들의 ××期에 잇서서 具建制度和 大家臣인 神權思想을 倒壞키 爲하여 民衆의 압해서 理性의 나팔를 불면서 勇敢히 演出하던 活劇의 一幕物이다. 그러나 彼 等의 勇敢活劇은 沈默的 政策의 廣野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워 버리고 幕을 變하여 『칸트에 도라갈!』라는 藝題로 微妙, 眩亂한 人情劇을 演出케 되엿다. 왜 彼 等이 그것케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가. 그는 彼 等의 自體矛盾인 新興階級이 唯一한 ××인 맑스의 唯物辨證法으로서 彼 等의 陣營을 向하여 ××히××를 取함으

로 恰愜한 그들은 그 攻勢 를防禦하고자 하여 調和의 哲學, 妥協의 哲學, 保守의 哲學, 神秘의 哲學者인 칸트를 식혀서, 神秘劇을 演出케 하고 大衆으로 하여금 無料 入場을 작구 식힐여는 것이다.

보라!! 우리 朝鮮에도 엇지 名 俳優가 업는가.

올타 名 俳優 簇出! 簇出! 李品變씨! 柳葉氏! 金泰秀! (이 三 俳優의 假面은 李友狹氏가 벗긴 바 잇다) 新進 俳優 韓廷玉氏! 老將俳優! 그리고 中에도 有名한 韓稚振氏!

이에 韓稚振氏는 曰 唯心이라는 假裝을 훌륭히 하고서 『唯心이나 唯物이나』라는 藝題로서 出演키 爲하여 舞臺 上에 나타난다.

果然 氏는 엇더한 사람인가? 紹介者는 말한다. 氏는 썰조아 學者를 大量 生産하는 米國이라는데 가서 썰소아라는 大學校에서 多年 唯心論을 專工하엿는데 近來에는 朝鮮 民衆에게 『唯心論』을 宣傳하라는 썰조아지-들의 囑托을 맞고 와서 이제 朝光座에서 演劇을 하게 되엿습니다. 觀衆諸氏의 嚴正한 批判을 바래고 開幕하겠습시다』 벌서 觀衆은 嘲笑키 始作한다. 『日前 柳葉 金泰守 等은 假裝이나마 훌륭히 하고 나왔습므로 그래도 迷惑의 힘은 잇더니 이 俳優는 單純한 唯心』이라도 假裝 맞게 안헛습므로 아무 興味도 업다. 이 사람들아 볼것 업네! 哥哥』

哀哉라! 氏의 失敗여! 氏는 썰조아지-를 爲하여 重大 使命을 띄고 出現하엿스나 氏의 素志를 未達하엿스니 엇지 氏의 哀惜할 바 아니랴? 그러나 氏에게 感謝를 올닐 것은 氏도 만일 金泰秀氏와 갓티 半唯物(李友狹氏의 作名)를 假裝하엿던들 우리는 氏의 極에 醉하여 批判하기에 매우 困難할 것을 多幸히도 氏는 假裝이 單間無味한 싸담에 批判者의 苦勞를 省略하여 주엇기 때문이다. 아차 이런 秘密를 말하는 것은 敵에게 칼를 주는 세움이다. 中止!

[三] 論說者의 用兵法은 엇더한가

우리는 唯心論을 壞滅하는 同時에 觀照的 唯物論 機械的 唯物論도 排擊한다. 그럼으로 氏에게 未安한 일이지만은 氏의 博學을 자랑한 過去의 觀照的 唯物論者 等を 例證維列하여 所謂 批評 (千不當萬不當한評이지만은) 은 一一히 分析 論評치 안으려한다. 다만 氏의 思想의 本質을 捕捉하고서 그 核心만 論殺하면 足할 것이다.

一, 韓稚振 哲學의 內容 一瞥

[一]果然 認識을 써난 存在는 업는 것?

氏는 嚴正한 態度로 開戰을 實言한다.

『--前略, 그저 空然히 엇더한 預約的 利益과 先入見을 가지고 쏘는 周邊環境의 □時的 刺戟에 放縱하여 무엇을 議論한다 하면(보라! 自身の 告白을-

在洪)거기에는 曲解空論 또는 科學의 祖上이라는 [재코]의 偶像(偏見)들이 得勢하고 眞理란 것은 五里霧中에 숨고 만다』올타 그러면 누가 眞理를 五里霧中에서 發見하나 大衆에게 審判을 맞아 보자.

『實踐에 있어서 說明되는 理論이 客觀的 眞理다』(□□□)

적어도 氏은 衣食住 問題로부터 說教를 始作치 안니치 못한다. 『사람이 사는 이 世上에는 여러 가지 問題가 되겠지 만은 (또 었던 問題가 있는가?) 그 보다도 먼저 그 衣食住 需用할려는사람 그 自體로부터 問題가 되었다.(그 自體란 것은 何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잇는 다음에 밥 문제, 옷 문제가 生起한다 함이다』

以上에서 氏는 自體(肉體-)업시는 衣食住 問題가 生起할 수 업다 하섯다. 올타 그러면 ㅈ라서 肉體업시는 精神도 업슬 것 안닌가?

氏는 例하나 안들 수 업다.

『가슴 내가 었던 旅行을 한다 하자 내가 그 旅行을 갈야니까 以前에 생각지도 안튼 旅費 問題며, 衣服問題이며, 其他 行□을 念慮하게 된다(올소! 當然한 말씀이요. 旅行이라는 客觀的 條件이 잇섯기 ㅈ문 ㅈ 그런 念慮가 생기는 것이다.-在洪)即 旅行할라는 活動에 依하야 모든 物質에 □한 問題가 現出하엿다. 이럼으로 萬若 意識的 活動이 當初에 업섯스면 여긔서 問題가 된 그 모든 物質들의 存在도 잇슬 수 업고, ㅈ라서 그것들에 對하야 議論할 根據도 업는 것이다.』

氏는 意志의 非決定을 말하려다가 도리허 意志의 決定을 말하엿다. 이것이 야말로 ㅈ쌈 ㅈ친 格이다.

올타! 우리의 意志는 結코 獨立하야 잇는 것이 아니라 客觀的 條件에 決定 되엿는 것이다. 이에 나도 例를 하나 들어보자. 여긔 었던 辯士가 熱熱히 演說를 하다가 一盞의 茶를 마신다 하자. 그러면 웨 그가 茶를 마시게 되엿는가. 氏는 말하리라 自由인 意志가 식힌것이라고, 그러나 事實은 그와 反對다. 그 演士가 熱辯을 吐하엿기 ㅈ문 ㅈ 渴□症이 생겨서 茶를 마시게 하는 一種의 變化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ㅈ 原因이다. 다시 말하면 體內的 器管의 變化, 生理的 原因이 一定 欲한을 生起케 한 것이다. 氏여 알엿는가? 그러면 어서 氏의 名論인 認識을 ㅈ난 存在가 업다는 ㅈㅈ을 들어보자.

『(前略)勿論 여긔서-(氏는 ㅈㅈ한다.)비록 그 아해가 外界의 物質를 意識도 안어도 物質들은 嚴然히 存在하야 잇고, 그 아해의 意識은 外界的 刺戟에 依하야 出現치 안엇나냐 (올타!-在洪)할 수 잇겿지만은 그러나 이 反問은 그 아해가 안인 었던 第三者가 代論하는 것이요. 그 아해의 自體로서의 論이 안니다.(보라! 이 偉大한 發見을 !-在洪) 이럼으로 그 結局은 그 아해 自身の

立地로서는 그의 意識이 잇섯기 때문에 그 外界의 存在가 認定된 것이다. 적어도 意識을 셔난 存在는 업다. 이럼으로 認識 업시도 萬事가 絶對로 存在한다는 것은 엇던 第三者의 獨斷的 妄言이 되고 만다.』

以上の 말이야말로 氏의 獨斷的 妄言이다. 나는 氏의 妄論을 簡單히 論殺 하겠다.

우리는 五官을 가지고 있다. 이 五官으로 因하여 外物를 認識한다. 이 五官에 依치 안코서는 外物를 認識할 方法이 업스며, 五官 外에는 認識할 機關이 업다. 그럼으로 우리가 알고 잇는 것은 이 五官으로 因하여 엇은 바 事物이며, 또 이 五官으로 因하여 엇은 것이 唯一한 事實이다. 그럼으로 氏의 所謂『意識이 잇섯기 때문에 그 外界의 存在를 認定된 것이라』는데 反하여 그 意識(精神!)은 物質의 反映에 不過한 것이다. 또한 氏의『認識을 셔난 存在는 업다』는데 反하여 物質의 存在를 셔난 認識은 업슬 것이다. 氏여!그래도 不滿이 잇는가?

氏는 人間을 神과 갓티 生覺한다. 그러나 그는 超人間인 氏의 生覺에 不過하다. 이에 썩하린으로 하여금 人間을 定理 식혀보자.

(1) 人間은 自然의 一部分인 것

(2) 人間은 他의 動物로부터 進化된 것.

(3) 人間은 一定한 方法으로 組織된 物質이 出現하여 비로소 精神이 出現한 것.

反動的 唯心論者인 氏의 얼마나 놀널 말이랴?그러나 그것이 事實임에는 엇절 수 잇는가?

[二]果然 맑쓰學說에 矛盾이 잇는가?

氏는 自身の 所任에 忠實키 爲하여야는 적어도 맑쓰學說를 붓들고 是非를 안을 수 업다. 慷慨無量한 態度로 自信이나 잇는 듯이 氏는 말슴한다.

『近代에 社會主義學者들은 「맑쓰」學說 中 唯物史觀을 □解 (특히 朝鮮에 社會主義의 初學者들에 잇서서 더 其하다) 하여 가지고 現代科學的 唯物論을 맑쓰社會主義學說의 根據 갓티 말하나 그것은 온통 無根의 所說이다. 맑쓰가 自己學說의 根地를 絶對的 小論者 헤겔의 辨證法에서 엇은 것은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맑쓰는 헤겔과 갓티 人類歷史는 一個 觀念의 發展 進行으로 보왔다(보라! 이□□을-)이 史的 發展의 法則은 思考 作用이 두 矛盾된 思想이 對立 할 적에 거기서 認定的 綜合 否定的 否定的 思想이 出하고 또 여기서 始作하여 前進行法을 되푸리 하는 가운데 不絶히 下級에서 高級으로 達하는 것과 갓티 社會發展도 그와 갓티 正과 反의 對峙를 □하여 나아 간다』 하엿다.

非底蛙 엇지 大宇宙를 알냐? 氏가 맑스學說를 云云한다는 것은 장님이 地理를 말하는 것과 갓지 안을가? 아무리 氏가 맑스學說를 數百卷을 읽었다 하야도 典型的 썰조아學者에게는 理解될 理는 千萬不當하다. 왜냐하면 푸로레타리아의 科學은 썰조아의 이데올로기를 揭□하기 前에는 理解할 수 업는 까닭에.

氏의 말한 바 맑스가 헤-겔의 後繼를 밋었다는 것은 事實이다. 『우리 獨逸 社會主義者는 우리가 다맛 산시몬 [생시몽], 프리에, 오-엔의 後繼者 썰아 나라 칸트, 피테 及 헤-겔의 後繼者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엥겔스가 자랑 삼아 말한 바 인 것을 그러나 氏여! 決코 맑스가 헤-겔에게 氏의 칸트哲學 後繼 밋듯이 無條件으로 後繼를 밋은 것이 아니다. 맑스는 적어도 헤-겔哲學를 揭□傳化 식혔던 것이다. 이에 맑스 自身으로 하여금 말을 식혀보자 『나의 辨證法은 그 根本에 잇서서 헤-겔流의 그것과 相異할 썰아니라 그 正反對의 것이다. 헤-겔에 잇서서는 思考 思程은 彼가 그것을 理念의 名 下에 獨立的 主體에 轉換 식히기까지 한 바의 思考過程은 現實世界의 創造이고 現實世界는 다만 思考過程의 外的 現象을 形成함에 不過하다. 나에게 잇서서는 이에 反하여 觀念世界는 人間의 頭腦 中에 換□되고 反映될 썰 不過하다. 辨證法은헤-겔의 손에서 神秘化 하엿스나 그러나 그것은 決코 彼가 辨證法의 一般的運動形態를 비로소 抱括적으로 그리고 意識的 樣式에 잇서서 說明한 것이란것을 妨害하는 것은 아니다. 헤-겔에 잇서서는 辨證法이 道立하고 잇다. 神秘의 帳幕 中에서 合理的核心을 發見하기 爲하야는 그 道立의 辨證法을 顛倒치 안으면 안된다』 氏여! 알겠는가? 그러나 唯物辨證法 幼稚園生徒도 못되는 氏에게 말하는 것은 牛耳讀經이 아닐가

氏의 論語는 繼續본다 「이럼으로 맑스는 말하되 모든 人類社會 發展은 兩對立 한階級の 鬭爭으로 되었다 하엿스니 곳 人類歷史는 鬭爭史로 본 것이다.(그러타-在洪)겨의에 말하는 兩對立 階級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업시「푸로레타리아」와 『썰조아지」일 것이다.(注意! 무, 썩□□은 現在社會이 잇는 것이다-在洪)그리고 이 鬭爭의 根據즉 社會成立의 原因과 根據는 物質的 條件이라 한대서 그는 唯物史觀의 立地를 엇었다.(너무나 皮像論이다!-在洪)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맑스의 社會主義를 다 說明하려도 안커니와 如何間 그 所謂 對立的 兩 階級이 鬭爭하며 나가는 것이 人類的 歷史라 할진대 人類歷史의 根地는 투쟁 즉 活動이 分明하다. 그리고 兩階級이 對立하야 生存을 닷툰다 하엿스니 이 點에 잇서 맑스는 意識的, 動的條件을 否認하는 主義가 아니라 實로 意識的, 活動主義(動的×××)라 할 것이다. 비록 그이가 物質이 人의 意識을 支配한다 하엿스나 그는 自己의 鬭爭의, 歷史觀과 矛盾되는 主張이

요. 不然이면 物質를 支配하는 事實를 暫間忘却한 失手라 할 것이요.(보라! 이 最後의 □□을 -在洪)하기 때문에 「맑쓰」를 純唯物論者 즉 機械主義的 人生觀論者라 하기 甚難하다.(그야 그러코 말고-在洪)」

夢遊病 患者의 군소리다! 幽靈의 亂舞다! 一笑에 付합즉한 일이다. 아니다 우리는 唯物辨證法이라는 呪文을 외워서 幽靈을 물니치지 안으면 안된다.

氏여! 果然 맑쓰 學說에 矛盾이 있는가? 失手한 것이 있는가. 만일 맑쓰가 『人의 意識이 物質를 支配한다』고 하였더라면 氏는 手□足蹈를 하겠지?

나는 煩雜를 避하고 레-닌이 맑쓰의 唯物辨證法을 엇더케 잘하였는가를 引用하려한다.

『生活, 實踐은 認識理論이 考察할 基本的 視角이다. 그래서 그 理論은 哲學的 空論의 際限을 巧辯을 劈頭에 放逐함에 依하여 必然的으로 唯物에까지 進展된다.(中略)우리들의 實踐으로써 確證한 것은 唯一의 最後의 客觀的 眞理라 하면-그곳으로부터라는 認識이 出來한다. 즉 이 眞理에 到達하는 唯一의 길은 唯物論的 立場을 取하는 科學이다』 그리고 또 레닌은 말한다 『그러나 實踐의 規準-즉 最近 數十年 間에 잇서서 여러 資本國의 發展은-맑쓰의 總社會, 經濟理論 一般의 客觀的 眞理인 것을 說明한것 뿐이며, 그의 엇던 部分, 或은 一定의 定理 等を 說明한 것이 安寧으로 맑쓰主義者의 「獨斷論」이라고 말하는 것은 썰조아學者의 容恕치 못할 讓步를 敢行하는 것이다. 맑쓰主義者의 見解로부터 導出되는 唯一한 結論은 次와 같다. 맑쓰主義의 길에 依하여서만이 우리는 漸々 客觀的 眞理에 接近한다. 그러나 其他의 엇던 길에 依하여서라도 橫道에 徘徊하고 虛位에 陷落할 뿐이다』

不幸한 氏여! 氏는 맑쓰主義의 客觀的 眞理를 단 한번이라도 조흔니 眞正한 態度로 생각하여 본 적이 있는가? 氏야 말로 徘徊할 곳 은橫道뿐이며 陷落할 곳은 虛位 뿐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말하야 둘것 은 氏의 讚語인 맑쓰가 階級鬭爭의 基礎를 唯心에다 두지 안코 物質에다가 두웠느니 矛盾이니 失手이니 한 것은 一一히 舉論할 必要가 업다는 것이다. 웨그러나하면 벌서 讀者諸氏의 明白한 理解가 잇슬 것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나는 以上の 레-닌의 말로 하여금 썰조아諸學者에게서 위함으로써 滿足하려한다.

[三] 偉哉라 韓稚振氏의 五大 發明이여

記者諸氏여! 놀내지 말지어다. 우리 韓稚振氏는 必竟 五大 發明을 하고 말엇다. 그 發明한 것을 要約하면 如左하다.

- (1) 神秘 否認은 有效하지 안타는 것
- (2) 唯物論的 說明을 拒否한 것

(3) 反 生理學說를 高唱한 것

(4) 力不滅說를 否認한 것

(5) 頭腦가 업서도 精神 作用을 할 수 있다는 것

偉大한 發明이다! 우리 朝鮮의 大發明家! 아니 世界的 大發明家다! 우리 朝鮮의 榮光이 아니면 안니된다. 萬國 쏘조아 [브르조아] 萬歲! 韓稚振氏 萬歲!

讀者諸氏여! 우리는 이 大發明家인 氏를 浮待接할 수야 잇는가? 자- 氏를 『神秘傳士』로 推□합시다. 그러나 未安한 일이지만은 나 는以上에 氏의 發明에 對하야는 險談치 안으려다. 차라리 小學校生徒에게 委任하는 것이 □當하기때문에.

氏여! 못느냐 小學校生徒들의 氏에게 모대□□笑는.

[四] 唯物論은 果然 社會를 滅亡케 하는가

只今 우리 韓稚振氏는 極度の 神經衰弱에 煩悶하고 있다. 煩悶에서 悲觀…悲觀에서 自殺로…

氏는 世上을 悲觀하면서 呻哈한다 『우리가 唯物의 主張처럼 世上 萬事物 어느것이던지 다 物質의 根地에서 生起하였다고 그 歸結도 다 物質에만 있다고 생각하여 보자. 쏘는 이 世上에 精神 方面에 對한 모든 小說, 歷史, 宗教, 哲學, 藝術, 社交, 同情, 慈善, 道德 갖튼 것을 온통 사람 生活에서 써여 버린다 하고 생각하야 보자 그럿타 하고 누구나 우리의 人生生活를 본다하면 그 얼마나 가난하게 보여 질는지 可히 推測할 수 잇겠다.(哀願이다!-在洪)世上에 잇는 商業에 對한 書籍만이라도 남겨 두고는 그外 精神에 對한 書籍을 除去한다면 몇 卷의 冊이 남아 잇슴즉한가? (哀願이다!-在洪)精神 方面을 만히 爲主하는 人類 歷史에 對한 冊子도 滅하고 美를 目的한 藝術도 眞理를 求한 哲學도 善을 命하는 道德도 모다 업다하면 거기에는 眞, 善, 美 업는 生活이 될 쏘아니라 彼此 理解조차 업서저서 從來에는 주먹싸움, 칼싸움에 全滅하고 말 것이다.(갑히론悲哀다-在洪)이럼으로 精神의 存在와 偉力을 否認하고 싸라서 그 價値를 沒覺하는 學說이나 主張은 人類社會를 一種 無味한 禽獸社會로 變□ 식히려 하는 것이니 이 點에 잇서서 보다 向上 될 生活을 偉憬하는 이는 함부로 춤추고 짓거리지 말고 (最後의 達言이다-在洪) 自己의 理論의 結末를 生覺할 必要가 잇다 한다』 울타! 世上은 滅亡한다! 世上은 禽獸化하였다. 그러나 이 滅亡은 氏의 幼像 世界만이 滅亡한다. 그리고 이 禽獸化란 것은 氏의 禮□하는 ××××만이 禽獸化하였다.

우리 唯物辨證法은 아닌게 아니라 現代 有產者 社會에 事物化한 小說, 歷史, 宗教, 哲學, 藝術 등을 排擊한다. 그러나 우리는 排擊만을 爲한 排擊이 아니라 ××××한 排擊이다. 그럼으로 새로운 ××××에 □하야 그에 適應한

새로운 精神의 罫을 滿發케 할 것이다.

『人類가 社會的으로 그 生活資料를 生産할 때 어느 一定한 必然的인 그들의 意志로부터 獨立한 關係를 맺는다. 그 關係는 卽 그 社會에 있는 物質的 生産力의 一定한 發達程度에 適應한 生産關係이다. 이 生産關係의 總和가 社會의 經濟的 程度를 만들고, □ 法律的 及 政治的 上部構造를 作成하는 眞實한 土□가 되어 또 此에 適應한 一定한 社會的 自覺을 生起케 하는것이다. 이 物質的 生活資料의 產出方法은 社會的 政治 及 精神의 一般生活 上 過程을 決定한다』-맑스

『經濟的 基礎가 變動함에 따라서 그의 巨大한 上部構造가 또한 或은 徐徐히 或은 急激히 革命이 된다』맑스

[五] 그러면 果然 道德이 客觀的 自然律로 永遠히 存在할 수 있는가?

反動化한 賤者들의 忠臣인 氏는 썩어 곰팡내 나는 道德을 붓잡고 發惡을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氏의 重大한 使命을 다하기 爲하야는 무엇보다도 强者를 爲하야 있는 道德을 하로라도 더 維持치 안니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서 氏는 必死의 힘을 다하야 死滅 되어 가는 道德을 붓잡는다 『(前略)이와 갓티-氏는 말씀한다-道德이란 것도 唯物論者 主張처럼 아무 根據가 없다 하야 함부로 動格될 것도 안니다. 唯物論者에 依하면 道德은 엇던 專制者(神, 僧侶, 君主)의 억제의 命令에 지내지 아니한 바 그 專制者들의 沒落에 從하야 道德도 沒滅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道德은 아무 存在的 價値도 없다 하며 (그렇타!-在洪)그것을 反對 抗議하는 것을 唯物論者들은 一種 큰 자랑거리 갓티 생각하고 意□惕々하게 웃줄대지만은 이는 道德이란것이 무엇인지 根本부터 아지못하는 沒覺者의 妄動인 것을 알 수 있다.(妄動者는 難오?-在洪)道德律이 世上 人의 手中에 드러가서 그것이 흔히 神秘化, 迷信化하게 되는 境遇를 우리는 遺□으로 看做하지만은 (神秘主義者가 왜 神秘化를 遺憾으로 生覺한만 말인가?-在洪) 그러나 原 道德律은 客觀的으로 存在한 自然律이라고 主張한다.身體를 健全케 할야면 衛生律를 직혀야 하는 것과 갓티 幸福스럽은 生活를 맛볼야면 道德, 즉 거짓말 하지마라, 부즈런이 忿鬪하라, 하는것을 實際로 직혀야한다 함이다. 모든 社會生活 其他 人間에 去來되는 事業에 거짓말 잇고 속임이 잇고 □取가 잇다 하면 絶對 그 生活를 維持할 수 업는 것이다. 公正과 眞正으로써야만 人類 生活를 幸福스럽게 만들 수 잇다 하는 生活 自體의 命令이 곧 道德律이다. 함으로 道德 업시는 아무런 生活도 할수 업는 것이다』

아무럼 以上の 說敎를 엇지 無理라 하랴. 그러나 遺憾이지만은 氏의 붓잡고저 하는 强者의 道德 ××階級을 爲한 道德은 먼저 死滅의 길을 催促하는

것을 잊지라! 氏는 아무리 그 道德을 붓잡아서 ××을××키 爲하여 永遠히 道具로 □야 하지 안은 決코 民衆은 愚鈍한 者가 안임으로 그들의 生活官□에서 먼저 道德-屈從, 溫純을 가라치는 ××××××갓티 버린지 오래다. 이에서 나는 氏의 道德을 論殺키 爲하여 일리취의 宗教觀 을引用코저 한다.

[illegible]

자- 우리의 동무여! 有産者社會로 하여금 死滅하여 가는 精神的 독
주,×××××,××을 弔別키 爲하야 만세나 한번 부르자.

하나님아부지萬歲! 正直! 屈從! 博愛! 萬歲! 郡君! 臣臣! 父父! 子子! 萬歲!

三, 擱筆에 際하야

韓稚振氏여! 나는 決코 以上の 글을 氏의 反省을 促키 爲하야 쓴 것이 아
니니 安心하소서. 만일 氏에게 反省을 促한다면 ××階級인 썰조아지들의 反
省을 促하는 것과 五十步百步의 差일것이다. 나는 다만 이 글이 氏의 論文에
眩惑한 讀者들의 解惑의 一助가 되면 滿足하다.

一九二七, 二, 一二, 東京서